중산간 오지서 세계자연유산 메카로 떠올라

용암동굴계의 모태 거문오름 품은 선흘2리

데스크승인 2014.02.03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제주의 오름 가운데 으뜸은 '거문오름'이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떠올랐다.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은 지하로 흘러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뱅뒤굴 등 장장 13㎞에 이르는 용암동굴계를 형성했다.

용암동굴의 모태인 거문오름을 품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2012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들어서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동쪽으로 27㎞ 떨어진 해발 350m에 위치한 선흘2리는 중산간 마을 가운데 오지일 정도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과거 주민들은 방마다 고구마를 쌓아 식량으로 비축해 한 겨울을 났다. 전기·수도는 1970년대 말에야 들어왔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0대들마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호롱불을 켜고 살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봤다"고 회상하는 등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봤다.

제주시내까지 뚫린 번듯한 길이 없어서 과거 마을의 생활권은 가까운 조천읍에 있었다. 그래서 중·장년층 주민 대다수는 함덕중학교를 졸업했다.

옛 북제주군은 낙후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1969년 30가구를 이주시켜 양잠단지를 조성했다. 마을에는 뽕나무가 무성했고, 주민들은 뽕잎을 먹인 누에고치를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조천읍에서 하루 2차례 비포장도로를 따라 버스가 다녔던 선흘2리는 1988년 제주시 건입동에서 표선면까지 '동부산업도로'(현 번영로)가 개설되면서 접근이 편리해졌다.

이에 맞춰 주민들은 사양 산업이 된 누에고치 생산을 접고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도라지·더덕·메밀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도내 마트에 공급되는 도라지의 80%는 선흘2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편 마을의 상징이 된 거문오름은 정상부가 456m, 말굽형 분화구의 둘레는 4551m로 한라산 백록담 둘레 2300m보다 2배 가량 넓다.

원시림의 울창한 숲을 이뤄 주민들도 길을 헤맸던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탐방로가 개설됐다.

용암협곡→알오름 전망대→숯가마터→화산탄→선흘수직동굴에 이르는 8㎞의 탐방로가 설치됐다. 오름 보호를 위해 1일 입산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연 속 휴식을 주제로 지난해 '휴휴 페스티벌'을 거문오름에서 개최해 천연염색과 슬로푸드를 우수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나섰다.

350년 전 설촌 이래 현재 207세대 411명이 거주하는 선흘2리는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로 떠오르고 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